

**언어와 매체 EBS 수능특강  
2024~2019학년도 6개년 모음**

**5. 국어사 (정답 및 해설)**

**편집자 : 오르비 '인센디움'**

**해당 자료의 저작권은 EBS에게 있습니다.**

09 언어

본문 83~88쪽

- 01 ⑤      02 ②      03 ③      04 ③  
05 ⑤      06 ①

01 중세 국어의 문법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중세 국어에서 ‘ㅎ’ 종성 체언의 ‘ㅎ’은 ‘ㄱ’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 ‘ㄱ’과 축약된 형태가 사용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에는 ‘깊+과’에서 ‘ㅎ’과 ‘ㄱ’이 축약한 ‘길과’가 나타난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도 ‘ㅎ’이 사용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에는 ‘깊+이’를 이어 적은 ‘길히’가 나타난다. 그리고 명사가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ㅎ’이 탈락했다고 하였으므로 ㉢에는 ‘길’이 나타난다.

02 중세 국어의 문법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중세 국어에서 ‘하’는 화자가윗사람을 부를 때 쓰는 존칭의 호격 조사라고 하였고, ‘아’는 같은 신분이나 아랫사람을 상대하여 부를 때 사용하는 조사라고 하였다. 따라서 ‘大王(대왕)하’는 화자보다 ‘大王(대왕)’이 윗사람일 때 쓰는 표현이고, ‘大王(대왕)아’는 화자가 ‘大王(대왕)’보다 윗사람일 때 쓰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탐구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중세 국어의 ‘하’는 높임의 호격 조사이므로 ‘님금하’의 ‘하’가 ‘님금’을 높이는 호격 조사에 해당한다는 것은 적절한 내용이다.  
③ ‘야’가 모음 뒤에서 ‘야’로도 나타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④ 존칭의 호격 조사 ‘하’가 근대 국어 시기에 소멸되고 조사 없이 접미사 ‘-님’이 통합된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⑤ 비존칭의 호격 조사가 근대 국어에서부터는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서는 ‘아’, 모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서는 ‘야’로 나타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03 중세 국어 자료 탐구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부텃’은 명사 ‘부터’에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한 형태이다. 따라서 ‘부텃’을 명사라고 설명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에서는 지시 관형사 ‘그’가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에서는 관형사절 ‘내 지비 이십’이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에서는 명사와 관형격 조사가 결합한 ‘아기아들익’이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에서는 ‘너비 光明이 비취다’에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한 ‘너비 光明이 비취닷’이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04 중세 국어 자료 탐구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내히’의 ‘녕’은 ‘ㅎ’ 종성 체언이다. ‘내히’는 ‘녕+이’를 이어 적기한 것이므로 주격 조사 ‘히’가 쓰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기픈’은 ‘깊은’을 이어 적기한 형태이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② ‘브르매’는 ‘브름에’를 이어 적기한 형태로, 체언 ‘브름’과 조사 ‘애’가 결합할 때 양성 모음끼리 결합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④ ‘뽕’의 어두에는 서로 다른 자음 ‘브’과 ‘ㄷ’이 연이어 나타났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⑤ ‘모르스 불리’는 ‘모르-+-슬-+-으리’로 분석할 수 있으며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슬-’이 사용되었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05 중세 국어의 문법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의 ‘브리시고’의 ‘-시-’는 화자인 ‘耶輸(야수)’가 ‘妻眷(처권)’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如來(여래(태자))’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의 ‘-(으)샤-’는 이 글의 서술자가 말하는 행위의 주체인 ‘耶輸(야수)’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의 ‘-으시-’는 화자인 ‘耶輸(야수)’가 자신을 아내로 삼는 행위의 주체인 ‘如來(여래)’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의 ‘-슬-’은 화자인 ‘耶輸(야수)’가 목적어 자리에 있는 ‘太子(태자)’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의 ‘-습-’은 화자인 ‘耶輸(야수)’가 목적어 자리에 있는 ‘하늘’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 06 중세 국어의 이해

답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에서는 ‘그칠씨’를 통해 ‘긫다’라는 기본형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그치샤’는 ‘긫이샤’를 이어 적기 한 것이므로, 사동 접미사는 ‘-히-’가 아니라 ‘-이-’임을 알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에서는 ‘그우러’를 통해 주동사의 기본형이 ‘그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우릴씨니’를 통해 사동사가 ‘그우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올이다’를 이어 적기 한 것으로 사동 접미사가 ‘-이-’임을 알 수 있다.

③ ㉢에서는 ‘뫼며’를 통해 주동사의 기본형이 ‘뫼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뫼우시니’를 통해 사동사가 ‘뫼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동사에 결합한 사동 접미사는 ‘-우-’임을 알 수 있다.

④ ㉣에서는 ‘씨시니라’를 통해 주동사의 기본형이 ‘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씨오노니’를 통해 사동사가 ‘씨오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동사에 결합한 사동 접미사는 ‘-오-’임을 알 수 있다.

⑤ ㉤에서는 ‘긫고’를 통해 주동사의 기본형이 ‘긫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긫피시니’를 통해 사동사가 ‘긫피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긫이다’를 이어 적기 한 것으로 사동 접미사가 ‘-이-’임을 알 수 있다.

## 10 언어

본문 89~91쪽

01 ④

02 ②

03 ③

04 ④

05 ①

## 01 중세 국어의 음운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흐리-+-어’가 ‘흐리어’가 되는 것은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되는 반모음화가 아니라 반모음 ‘j’의 첨가가 일어난 것이므로 15세기 반모음화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티-+-음’이 ‘툼’이 되는 것은 ‘티’의 ‘i’가 반모음 ‘j’로 반모음화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바+이라’가 ‘배라’가 되는 것은 ‘이라’의 ‘i’가 반모음 ‘j’로 반모음화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쑤미-+-어’가 ‘쑤며’가 된 것은 ‘미’의 ‘i’가 반모음 ‘j’로 반모음화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⑤ ‘논호-+-아’가 ‘논화’가 된 것은 ‘호’의 ‘o’가 반모음 ‘w’로 반모음화된 것이므로 적절하다.

## 02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의 ‘저도’가 [저도]로 발음되는 것은 반모음 ‘j’가 탈락했기 때문이지 반모음 ‘j’가 첨가되었기 때문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기’의 ‘i’가 반모음 ‘j’로 바뀌는 것은 서로 음성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③ ‘피-+-어’가 ‘피[피:]’가 될 때에는 장음화가 일어나는데 ‘살피-+-어’가 ‘살피[살피:]’가 될 때에는 장음화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보상적 장음화는 어간이 1음절인 경우에 일어나기도 하는 현상으로 ‘살피-’는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④ ‘나뉘[나뉘]’와 ‘뉘[뉘:]’는 모두 단모음 ‘u’가 반모음 ‘w’로 바뀌는 ‘w’ 반모음화가 일어나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⑤ ‘씨[씨]’는 ‘쓰-+-어’에서 단모음 ‘-’가 탈락한 것이다. ‘피-+-어 → 피[피:]’의 경우 반모음화가 일어난 것이므로 서로 다르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체 상태의 물방울이 될 때'를 가리키며 동일한 표현의 반복을 피함으로써 글의 경제성을 높이고 담화의 응집성을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⑤ '이'는 앞서 언급한 '이것(디메틸설파이드)'이 휘발되면서 구름 응결핵이 되'는 것을 가리키는데, 앞에서 나온 내용을 대응함으로써 담화의 응집성을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05 호칭어와 지칭어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은 화자가 자신과 청자의 관계에 맞는 지칭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화자인 외숙모가 자신의 딸의 입장에서 청자와의 관계에 맞는 지칭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또한 ㉡도 화자인 어머니가 청자인 채윤의 입장에서 사용한 지칭 표현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과 ㉡은 모두 채윤의 외사촌 동생을 가리키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② ㉢과 ㉣은 채윤의 어머니를, ㉤과 ㉥은 채윤의 할머니를 가리키는 표현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③ ㉦과 ㉧은 모두 채윤의 외숙모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청자는 같지만 화자가 각각 엄마, 채윤으로 달라 다르게 표현한 것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⑤ ㉨은 화자인 채윤이 자신과 외삼촌의 관계를 고려하여 사용한 지칭 표현이고, ㉩는 외숙모가 청자인 채윤과 자신의 남편의 관계를 고려하여 사용한 지칭 표현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06 담화의 특성

답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직시는 어떤 언어 표현의 의미가 발화 장면에서 따라 지시 대상이 달라지는 것인데 '매일'은 지시 대상이 달라지는 표현이 아니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네'와 '이쪽'이 직시 표현에 해당하므로 '네가 이쪽으로 오면'은 발화 장면에서 따라 지시 대상이 달라지는 표현이다.
- ③ '지금'이 직시 표현에 해당하므로 '지금부터 세 시간 동안'은 발화 장면에서 따라 지시 대상이 달라지는 표현이다.
- ④ '여기'가 직시 표현에 해당하므로 '여기서 미국에 가려면'은 발화 장면에서 따라 지시 대상이 달라지는 표현이다.
- ⑤ '이런'이 직시 표현이므로 '이런 식으로'는 발화 장면에서 따라 지시 대상이 달라지는 표현이다.

## 언어 09

국어사

본문 85~89쪽

- 01 ③      02 ③      03 ⑤      04 ②  
05 ④      06 ②

## 01 어휘의 변천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술지다'는 '술'과 '지다'가 결합한 것으로, 연결 어미가 결합하지 않은 채 어간들만이 어근으로 쓰인 비통사적 합성어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검붉다'는 원순 모음화를 거치며 현대 국어의 형용사 '검붉다'로 이어지고 있다.
- ② '뛰놀다'는 '뽀'를 'ㅈ'으로 표기하게 되고, 다시 'ㅈ'을 'ㅊ'으로 표기하게 됨에 따라 현대 국어의 동사 '뛰놀다'로 이어지고 있다.
- ④ '딛먹다'는 현대 국어에서는 합성어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찍어 먹다' 등의 구로만 표현할 수 있다.
- ⑤ '도콧다'는 현대 국어에서는 합성어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좃거나 굶다' 등의 구로만 표현할 수 있다.

## 02 중세 국어의 문법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왕이 좌시고 病이 도흐샤'와 '네 天下스 申에 못 도흐니라'에 모두 '도흐다'의 목적어가 없으므로, 하나의 형태가 자동사와 타동사로 쓰이는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로, '도흐다'는 '왕이 좌시고 病이 도흐샤'에서는 자동사로 쓰였고, '네 天下스 申에 못 도흐니라'에서는 형용사로 쓰인 것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ᄃᄃᄃ 아니 그출썸'에서는 '그츠다'의 목적어가 없으므로 자동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고, '닐웨예 닐굽 쇠줄 그쳐'에서는 '그츠다'의 목적어가 드러나 있으므로 타동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② '光明이 두루 비취더시니'에서는 '비취다'의 목적어가 없으므로 자동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고, '光明이 世界를 스뵈 비취샤'에서는 '비취다'의 목적어가 드러나 있으므로 타동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④ '마스뵈 여르샤 道를 得호시니'에서는 '열다'의 목적어가 없으므로 자동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고, '큰 마스뵈 물 여러 쯔

寂 버리고'에서는 '열다'의 목적어가 드러나 있으므로 타동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⑤ '魔鬼神'뒤에 다 물러 흐터 가리이다'에서는 '흐다'의 목적어가 없으므로 자동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고, '번개 구르물 흐터'에서는 '흐다'의 목적어가 드러나 있으므로 타동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03 중세 국어의 문법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년글'을 의미상으로 주어에 해당하는 성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帝業' 뒤에 목적격 조사 '을'이 붙어 '여르시니'의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 ② 보조사 '도'가 붙은 '흔 말도'가 '묻'하야 잇터시니'의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 ③ 목적격 조사 없이 '天地' 단독으로 'ᄃᆞᆫ치샤'의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 ④ '글 비호기'에 목적격 조사 '를'이 붙어 '즐겨'의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 04 중세 국어의 문법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알라'와 '아르쇼셔'를 비교해 보면, '알라'에는 '-라', '아르쇼셔'에는 '-쇼셔'가 각각 상대 높임의 종결 어미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별다른 선어말 어미의 사용은 확인할 수 없다. 참고로, '-쇼셔'는 청자를 아주 높이는 데 쓰인 '하쇼셔체'의 명령형 종결 어미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大王아'와 '大王하'를 비교해 보면, 현대 국어에는 쓰이지 않는 형태인 높임의 호격 조사 '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듣즈븃며'에는 '부터'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 '-줄-'이 실현되어 있으므로, 객체를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아츨미'에서 '익'이 앞 체언에 붙어 부사격 조사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하늬'에서 '시' 앞 체언에 붙어 관형격 조사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05 중세 국어의 문법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듣는다'가 '듣는가'에 대응되는 것을 통해, 중세 국어의 '-니다'가 주어가 2인칭일 때 의문문을 만드는 종결 어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대 국어에서는 '-니다'가 주어가 2인칭일 때 의문문을 만드는 종결 어미로 쓰이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모뎨'와 '法을'을 통해, 중세 국어에는 '뎨'와 같이 양성 모음을 가진 체언 뒤에서는 '을'로, '法'과 같이 음성 모음을 가진 체언 뒤에서는 '을'로 모음 조화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는 목적격 조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엇테'의 '엇'과 '듣즈반마르'의 '듣'을 통해, 중세 국어에서는 종성에서 'ㄷ'과 'ㅅ'이 각각 구분되어 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저그란'이 '적은'에 대응되는 것을 통해, 중세 국어에는 현대 국어의 '은'에 대응하는 보조사 '으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저믄'이 '어린'에 대응되는 것을 통해, '점다'가 현대 국어의 '젊다'와 달리 '(나이가) 어리다'의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06 중세 국어의 문법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法이(=法+이)'는 자음 뒤에서 주격 조사가 '이'로 나타난 사례이므로 ㉡에 해당한다. '부테(=부터+ㅣ)'는 모음 'ㅣ'나 반모음 'j'가 아닌 모음 뒤에서 주격 조사가 'ㅣ'로 나타난 사례이므로 ㉢에 해당한다. '아히(=아히+∅)'는 반모음 'j' 뒤에서 주격 조사가 영형태로 실현된 사례이므로 ㉣에 해당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羅雲이드려'는 '羅雲이' 뒤에 부사격 조사 '드려'가 붙은 형태이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는 '너' 뒤에서 주격 조사가 'ㅣ'로 나타난 사례이므로 ㉢에 해당한다. <자료>의 '부터'가 '부처를'에 대응되는 것을 통해, '부터'가 주어로 쓰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또한 만약 '부터'가 주어로 쓰일 때도 '부터' 뒤에는 주격 조사가 'ㅣ'로 나타나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언어 08** 담화 / 국어사 ① 본문 | 74~78쪽

01 ⑤    02 ①    03 ②    04 ③    05 ⑤

**01** 담화의 특성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⑤은 대용 표현으로, 그보다 뒤의 발화에서 언급되는 내용을 가리킨다. 하지만 ②은 그보다 앞의 발화에서 이미 언급된 것을 가리키는 대용 표현으로, ⑤의 뒤에 이어진 발화, 즉 ‘높은 데 있는 선반들에는 잎이 늘어지는 작은 화분을 두는 거야.’를 가리키는 말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과 ㉡은 선반을 놓을 특정한 지점을 가리키고, ㉢은 ‘꿈담 카페’라는 공간 전체를 가리킨다.
- ② ㉠과 ㉡은 ‘학생 1’이 처음에 선반을 놓으려고 했던 지점이고, ㉢과 ㉣은 ‘학생 2’의 말에 따라 ‘학생 1’이 선반을 설치한 지점을 나타낸다. ‘학생 1’은 직접 선반을 들고 있으므로 두 지점을 모두 ‘여기’라고 했고, ‘학생 2’는 그보다 떨어진 곳에서 말하고 있으므로 두 지점을 모두 ‘거기’라고 했다.
- ③ ㉤은 앞서 말한 ‘학생 2’가 발화한 ‘여기를 ~ 갈아서’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라는 대용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 ④ ㉥에서는 화자인 ‘학생 3’과 청자인 ‘학생 1’, ‘학생 2’가 대화 중에 공유하고 있는 정보인 화자가 선반을 설치한 지점을 가리키는 지시 표현 ‘여기’와, 화자가 설치한 선반의 모습을 나타내는 지시 표현 ‘이렇게’를 사용하여 담화의 응집성을 실현하고 있다.

**02**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A]의 ㉠는 간접 발화로 말하는 내용에 담긴 의도와 문장의 종결 표현이 일치하지 않는다. 반면에 ①은 말하는 이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하도록 요구하는 의도를 ‘주십시오’와 같이 명령형의 하십시오체로 발화한 것이므로 직접 발화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평서형 종결 어미를 사용한 발화이지만 내용은 혼자서 짐을 옮기기가 무거우니 같이 들어 달라는 요청의 의도를 담고 있다.
- ③ 의문형 종결 어미를 사용한 발화이지만 내용은 질문이 아

니라 ‘너무 늦은 시간에 전화했다.’라는 생각을 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 ④ 감탄형 종결 어미를 사용한 발화이지만 내용은 열어 놓은 창을 좀 닫아 달라는 명령 또는 요청의 의도를 담고 있다.
- ⑤ 평서형 종결 어미를 사용한 발화이지만 내용은 조용히 하라는 명령 또는 요청의 의도를 담고 있다.

**03** 담화의 통일성, 응집성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 글 전체의 통일성을 해치는 것은 문장의 위치 때문이 아니라 글 전체의 주제와 어긋나는 내용이기 때문이므로 ㉡를 삭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여러분이 읽고 싶어 하는 책들’과 ‘학습 자료들’이 바로 앞 문장에서 언급된 내용이기 때문에 ㉢에서 이를 가리키는 말을 생략하였다. 이러한 생략을 통해서도 정보의 경제성을 확보하여 담화의 응집성을 실현할 수 있다.
- ③ ㉣는 앞 문장과 뒤 문장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기 위해 사용한 접속 표현이다.
- ④ ㉤는 바로 앞 문장에서 언급한 ‘정원사’를 모집하는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반복은 주로 해당 정보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다.
- ⑤ ㉥는 학생회를 나타내는 ㉠와 학생회가 아닌 우리 학교 학생들을 나타내는 ㉡를 모두 포함하는 표현에 해당한다.

**04** 국어의 변천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은 것(㉡)을 (가)의 ‘ㄹㅅ·ㄹ’이 (나)에서 ‘ㄹㅅㅅ’로 표기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는 (가)의 ‘슬·후니’가 (나)에서 ‘슬호니’로 표기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ㄹ-ㄷ’을 ‘ㄹ-ㅂ’로 고쳐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다. 또한 반치음이 소실되어 표기에 쓰이지 않은 것(㉣)을 (가)의 ‘슬·후니’가 (나)에서 ‘슬호니’로 표기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는 (가)의 ‘ㄹㅅ·ㄹ’이 (나)에서 ‘ㄹㅅㅅ’로 표기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ㄷ-ㄷ’을 ‘ㄷ-ㄷ’로 고쳐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ㄱ-a’는 적절하여 고쳐 연결할 필요가 없다. ‘ㄷ-b’는



- ‘c-c’로 고쳐 연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② ‘l-c’는 ‘l-b’로 고쳐 연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c-b’는 ‘c-c’로 고쳐 연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④ ‘r-a’는 적절하여 고쳐 연결할 필요가 없다. ‘c-a’를 추가로 연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 ⑤ ‘l-a’는 적절하여 고쳐 연결할 필요가 없다. ‘c-a’를 추가로 연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 05 국어의 변천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근대 국어의 ‘이시니’는 현대 국어에서 ‘있으니’로 풀이됨을 알 수 있다. 근대 국어 ‘이시니’나 현대 국어 ‘있으니’에는 서술격 조사 ‘이다’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사람이 → 사람이’, ‘주인이 → 주인이’를 통해 근대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모두 주격 조사 ‘이’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 ② 근대 국어에서 ‘사르미’, ‘쥬이니’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근대 국어에서도 현대 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체언과 주격 조사를 구분하여 끊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 ③ ‘다리를 → 다리를’, ‘머리를 → 머리를’을 통해 근대 국어 ‘를’, 현대 국어 ‘를’은 모두 목적격 조사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 ④ 근대 국어 ‘형등의’에서 ‘의’는 현대 국어에서 부사격 조사 ‘에’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근대 국어 ‘의’가 부사격 조사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      |           |            |             |
|------|-----------|------------|-------------|
| 언어   | <b>09</b> | 담화 / 국어사 ② | 본문   79~83쪽 |
| 01 ③ | 02 ⑤      | 03 ②       | 04 ④        |
|      |           |            | 05 ③        |

### 01 담화의 특성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㉔(‘이런’)은 화자(손님)가 보고 있는 스마트폰의 사진 속 곱슬곱슬한 단발머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㉕(‘그런’)은 먼저 머리를 자른 다음에 파마를 하겠다는 화자(‘미용사’)의 발화 맥락상 머리를 자르는 행동을 가리키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㉔(‘이렇게’)은 화자(손님)가 가리키는 스마트폰의 인물 사진 속 곱슬곱슬한 단발머리 모양을 청자(‘미용사’)가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능을 하고, ㉕(‘이’)은 화자(‘미용사’)가 가리키는 사진 속 인물의 머리 길이를 청자(손님)가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 ② ㉔(‘그럼’)은 앞의 내용을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전제로 새로운 주장을 할 때 쓰는 접속 부사로, 화자(‘미용사’)가 곱슬곱슬한 단발머리를 하고 싶다는 ‘손님’의 앞 발화 내용을 받아들인 채 한 말이다. ㉕(‘그럼’)은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하다는 뜻으로 대답할 때 쓰는 감탄사로, 화자(‘미용사’)가 머리 모양이 자신에게 어울릴지 묻는 ‘손님’의 앞 발화에 대답하기 위해 쓰였다.
- ④ ㉕(‘저’)은 말을 꺼내기가 어색하거나 곤란하여 머뭇거릴 때 쓰는 말로, 화자(손님)가 머리 모양이 자신에게 어울릴지 고민하는 말을 꺼낼 때 쓰였다. ㉔(‘저’)은 말하는 이가 뒷사람이나 그다지 가깝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로, 화자(손님)가 청자(‘미용사’)를 상대로 자기를 낮추어 가리킬 때 쓰였다.
- ⑤ ㉕(‘그런데’)은 화제를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 쓰는 접속 부사로, 화자(손님)가 화제를 머리를 자르고 파마를 하고 싶다는 앞의 발화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곱슬곱슬한 단발머리 모양이 자기에게 어울릴지에 관한 고민으로 이끄는 기능을 한다.

### 02 담화의 특성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나)와 달리 (가)에서는 담화 생산자와 담화 수용자의 상호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는 ‘찾아오시는 길’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시각 자료인 ‘약도’를 활용하고 있다.
- ② (나)의 ‘국수를 먹다’, ‘국수를 먹이다’는 결혼식 피로연에서 흔히 국수를 대접하는 데서 비롯되어 결혼식을 올리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이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국수를 먹(이)다’라는 언어적 표현의 의미가 확대된 경우에 해당한다.
- ③ (가)는 결혼식에 대한 정보(결혼하는 사람, 결혼식 일시와 장소, 결혼식장에 찾아오는 방법 등)를 제공하는 기능과, 초대

받은 사람이 결혼식에 참석할 것(‘꼭 오셔서 축복해 주세요.’)을 요청하는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

④ (나)에서 외국인인 ‘마이크’가 자신의 결혼식에 그를 초대하려는 ‘현지’의 의도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국수를 먹다’, ‘국수를 먹이다’라는 한국의 결혼식 문화와 관련한 관용 표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03 담화의 특성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 ‘거기’는 앞에 나오는 ‘부산’을 대신하는 대용 표현이다. 대용 표현인 ‘거기’는 ‘거기에’에서 볼 수 있듯이 부사어인데 대용 표현이 대신한 말인 ‘부산’은 ‘부산을’에서 볼 수 있듯이 목적어로 쓰였으므로, ㉠에 대응하는 예문이다.

㉢: 앞에 나오는 ‘홍길동’을 대신할 만한 말인 ‘그는’ 따위가 ‘(그는) 거기서 학교에 다닐 것이다.’와 같이 생략되었으므로, ㉠에 대응하는 예문이다. 참고로 ‘거기’는 앞에 나오는 ‘서울’을 대신하는 대용 표현이다.

㉣: ‘차’는 ‘트럭’의 상위어로, 앞에 나오는 ‘트럭’을 대신하고 있으므로 ㉡에 대응하는 예문이다.

### 04 문법의 변천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이리로소이다’와 ‘일입니다’를 비교해 보면, ‘이리로소이다’의 주어는 ‘生老病死’이고 ‘일입니다’의 주어는 ‘생로병사가’로 둘 다 높임의 대상이 되는 주체가 아니다. ‘이리로소이다’에는 청자를 높이는 중세 국어의 선어말 어미 ‘-이-’가 사용되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王께’와 ‘왕께’를 비교해 보면, 중세 국어에도 현대 국어의 ‘께’와 형태는 다르지만 객체를 높이기 위한 조사 ‘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슬보덕’과 ‘아뢰기를’을 비교해 보면, 중세 국어에도 현대 국어의 ‘아뢰다’처럼 객체를 높이기 위한 특수 어휘로 ‘슬다’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③ ‘듣좁고사’와 ‘듣고서야’를 비교해 보면, 중세 국어에는 현대 국어와 달리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 ‘-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⑤ ‘호쇼셔’와 ‘하십시오’를 비교해 보면, 중세 국어에도 현대

국어의 ‘-십시오’처럼 청자를 높이는 종결 어미 ‘-쇼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05 어휘의 변천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중세 국어의 ‘어엿쁘다’는 근대 국어 시기에 두 번째 음절의 종성 ‘ㅅ’의 영향으로 세 번째 음절의 초성 ‘ㅂ’이 된소리가 되어 현대 국어에서는 ‘어여쁘다’의 형태로 쓰이게 되었다. 또한 중세 국어에서는 ‘불쌍하고 가련하다.’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아름답고 곱다.’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의미 영역이 이동했다고 볼 수 있다. 의미의 확대는 주로 단어가 다의성을 가지게 되는 것을 뜻하므로, ‘어여쁘다’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중세 국어의 ‘똥다’는 근대 국어 시기에 구개음화를 겪으면서 현대 국어에서는 ‘쫄다’의 형태로 쓰이게 되었다. 또한 중세 국어에서는 ‘보통 이상의 수준이어서 만족할 만하다.’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로서의 용법과 ‘좋아지다, (병이) 낫다.’의 의미를 갖는 자동사로서의 용법을 지니고 있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보통 이상의 수준이어서 만족할 만하다.’의 의미만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아 의미 영역이 원래보다 좁아졌다고 볼 수 있다.

② 중세 국어의 ‘사오납다’는 두 번째 음절의 모음 ‘ㅛ’가 탈락하면서 현대 국어에서는 ‘사납다’의 형태로 쓰이게 되었다. 또한 중세 국어에서는 ‘좋지 않다, 질이 낮다.’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성질이나 행동이 모질고 억세다.’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의미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④ 중세 국어의 ‘스랑ㅎ다’는 중세 국어의 단모음 ‘ㆍ(아래아)’가 소멸하는 음운 체계의 변화를 겪으면서 현대 국어에서는 ‘사랑하다’의 형태로 쓰이게 되었다. 또한 중세 국어에서는 ‘생각하다.’와 ‘아끼고 귀중히 여기다.’의 두 의미를 가졌는데 현대 국어에서는 ‘아끼고 귀중히 여기다.’의 의미만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아 의미 영역이 원래보다 좁아졌다고 볼 수 있다.

⑤ 중세 국어의 ‘너름’은 근대 국어 시기에 반모음 ‘j’ 앞에서 ‘ㄴ’이 탈락됨에 따라 현대 국어에서는 ‘여름’의 형태로 쓰이게 되었고, ‘한 해의 네 철 가운데 둘째 철.’이라는 의미는 달라지지 않았다.





④ '-르 수 있어?'는 A의 발화에서는 가능성을 물어보는 표현으로, B의 발화에서는 '창문을 열어 달라'는 요청을 완곡하게 전달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02 담화의 특성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의 접속 표현에는 '작은 호텔이라서 요리사의 솜씨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으나 ㉡의 접속 표현에는 '규모가 작아도 호텔의 요리사는 솜씨가 좋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은 '수현이는 작은 호텔의 요리사다. 규모가 작아도 호텔의 요리사는 솜씨가 좋을 것이다. 그래서 수현이의 요리는 정말 맛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 ② ㉠은 '수현이는 작은 호텔의 요리사다. 작은 호텔이라서 요리사의 솜씨가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수현이의 요리는 정말 맛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 ③ ㉠의 '그래서'를 '따라서'로 바꾸어도 '규모가 작아도 호텔의 요리사라서 솜씨가 좋을 것이다.'가 함축되고, ㉡의 '그래서'를 '따라서'로 바꾸어도 '작은 호텔의 요리사는 솜씨가 좋지 않을 것이다.'가 함축되어 '그래서'일 때와 각각의 함축 내용은 동일하다.
- ⑤ ㉠과 ㉡에서는 '그러나'를 사용하여 수현이의 경우는 앞 문장에 함축된 내용과 상반된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03 호칭어와 지칭어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이것, 저것, 그것'은 지시 대명사이지만 '이것이 제법 심부름을 잘해요.', '이것은 컴퓨터이다.'에서처럼 사물이나 사람을 가리키는 지칭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이이, 저이, 그이'는 '이이가 어디 아픈가 봐요.'처럼 지칭어로 사용될 수 있으며 호칭어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 ② '여기(요), 저기(요), 거기(요)'는 장소를 가리키는 지칭어로 사용될 수 있고, 사람을 부르는 호칭어로 사용될 수 있다.
- ③ '이쪽, 저쪽, 그쪽'은 '이쪽은 내 동생이야.'처럼 사람을 가리키는 지칭어(삼인칭 대명사)로 사용될 수 있고, '이쪽으로 달려왔다.'처럼 지시 대명사로 사용될 수 있다.
- ⑤ '이쪽저쪽, 여기저기'는 명사이지만, 호칭어로 사용되지 않는다.

04 통일성, 응집성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 '그 소식'은 동아리 '방송 출연 섭외' 관련 소식으로 뒤에서 나

올 말을 가리킨다.

㉡ '이런 말'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뒤에 나오는 속담을 가리킨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의 '그게'에 포함된 '그것'은 은수의 발화 이전에 재경이가 말한 '그 소식'을 가리킨다.

㉡ '그렇게'는 '기다리다'를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그게'에 포함된 '그것'은 은수의 발화 이전에 재경이가 말한 '방송 출연 섭외' 소식을 가리킨다.

05 경어법

답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예문 ㉠은 간접 높임이 사용된 경우로, 교장이 교사 및 교사와 관련된 대상(자녀)을 높이고 있다. 교사의 딸의 나이가 화자보다 어리더라도 교사와 화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교사의 딸을 높이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② 공식적인 상황에서 친구가 '제 질문에 먼저 대답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사용하여도 친구 사이라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 ③ 화자는 청자와 모르는 사이이기 때문에 청자를 높이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④ 선생님은 학생들과 친밀하고 학생들보다 나이도 많지만, 수업 시간이라는 공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높임 표현을 사용하였다.
- ⑤ 청자가 화자의 선배이고, 청자보다 나이도 많지만 친밀도를 따져 청자를 높이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청자를 높이거나 높이지 않는 표현이 모두 '높임 표현'에 포함되므로 해당 문장의 화자도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언어 09

본문 247~250쪽

01 ④

02 ④

03 ③

04 ②

05 ⑤

01 한글 창제 이전의 차자 표기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 '있'은 '有'의 뜻, '어'는 '魚'의 소리를 빌린 것이다. 따라서 ㉠, ㉡이 되어야 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 '둘'은 '二'의 뜻, '이'는 '二'의 소리를 빌린 것이다.

- ② ㉞: ‘나’는 ‘拿’의 소리, ‘가’는 ‘行’의 뜻, ‘자’는 ‘尺’의 뜻을 빌린 것이다.
- ③ ㉟: ‘여’는 ‘如’의 소리, ‘기’는 ‘基’의 소리를 빌린 것이다.
- ④ ㊱: ‘제’는 ‘第’의 소리, ‘발’은 ‘足’의 뜻을 빌린 것이다.

## 02 중세 국어의 이해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도련하다’와 ‘두련하다’ 중 ‘두련하다’의 어근 ‘두련’은 모음 조화를 지켰으나, ‘도련하다’의 어근 ‘도련’에는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 모두 있으므로 ㉠을 확인할 수 없다. ‘도’와 ‘두’의 대립을 통해서는 ㉡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누네’는 ‘눈+에’, ‘고대’는 ‘곧+에’이다. 이들은 ‘명사+조사’로 이루어진 것이며 각각 음성 모음끼리, 양성 모음끼리의 모음 조화가 지켜졌으므로 ㉠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안좁’은 ‘안-+-음’, ‘업숨’은 ‘업-+-음’이다. 이들은 ‘어간+어미’로 이루어진 것이며 각각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끼리 모음 조화가 지켜졌으므로 ㉡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아드릭’은 ‘아들+익’, ‘구루미’는 ‘구름+의’로 이루어진 것이다. 명사 ‘아들’과 ‘구름’은 각각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끼리의 모음 조화가 지켜졌으므로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뒤에 조사가 결합할 때도 각각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끼리의 모음 조화가 지켜졌으므로 ㉠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저거’는 ‘적-+-어’, ‘쟈가’는 ‘쟈-+-아’이다. 이들은 ‘어간+어미’로 이루어진 것이며, 각각 음성 모음끼리, 양성 모음끼리 모음 조화가 지켜졌으므로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저거’와 ‘쟈가’는 음성 모음 ‘ㄱ’과 양성 모음 ‘ㄱ’의 대립을 보이는 쌍이므로 ㉡을 확인할 수 있다.

## 03 중세 국어 자료 탐구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이 높이는 대상은 주어인 ‘내’가 아니라 목적어인 ‘포 말춤’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의 ‘썩’은 높임을 나타내는 ‘께’에 해당하며 부사어에 쓰이고 있다.
- ② ㉠은 ‘나+ㅣ’로, 모음으로 끝난 대명사 뒤에 결합한 주격 조사 ‘ㅣ’를 확인할 수 있다.
- ④ ㉡은 ‘깨달았습니다’로 풀이되므로 듣는 이(여기서는 ‘왕’)를 높이고 있다.
- ⑤ ㉡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 ‘도리(를) 배우게 하십시오’로 풀이되므로 ㉡은 목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4 중세 국어의 이해와 근대 국어의 이해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과 ㉡은 단어의 형태가 동일하며 방점 ‘:’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성조도 동일하지만, ㉠은 형용사, ㉡은 동사로 분류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③ ㉠은 좋은 상태를 나타내고, ㉡은 더 좋아지는 쪽으로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 ㉢ ㉣의 활용형인 ‘도코’(동-+-고), ‘도키나’(동-+-거나), ㉤의 활용형인 ‘도키늘’(동-+-거늘), ‘도토록’(동-+-도록)에는 모두 격음화(거센소리되기)가 반영되어 있다.

## 05 음운의 변천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쁘르다>무르다’에서는 양순음 ‘ㅍ’ 뒤의 평순 모음 ‘ㅡ’가 원순 모음 ‘우’로 변화하였다. 양순음이 아닌 ‘ㄹ’ 뒤의 ‘ㅡ’는 원순 모음으로 변화하지 않았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전혀>전혀’에서는 ‘ㅈ’의 조음 위치가 치조음에서 경구개음으로 변화하였으며, ‘ㅈ’ 뒤의 이중 모음 ‘ㅊ’에서 반모음 ‘j’가 탈락하여 단모음 ‘ㅊ’이 되었다.
- ② ‘ㅁ슴>마음’에서는 ‘ㅁ’이 소실되며 탈락하였다. 또 ‘ㅡ’는 첫 번째 음절에서는 ‘ㅏ’로, 두 번째 음절에서는 ‘ㅡ’로 변화하였다.
- ③ ‘더뵈>더위’에서는 ‘ㅂ’이 반모음 ‘w’로 변화하여 ‘ㅊ’와 함께 이중 모음 ‘ㅊw’를 이루었다.
- ④ ‘니르다>이르다’에서는 단어의 맨 앞에 있던 ‘ㄴ’이 ‘ㅣ’ 모음 앞에서 탈락하였다.

언어 10

본문 251~253쪽

01 ⑤
02 ③
03 ②
04 ④
05 ③

## 01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감자[감자]’에서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담자[담:짜]’에 나타난 경음화는 어간 ‘담-’이 가진 받침 ‘ㅁ’ 뒤 ‘ㅈ’이 ‘ㅈ’으로 바뀐 것이다. 따라서 ㉡에 해당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꿀잠[꿀잠]’은 순우리말이며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결전[결쩐]’에 나타난 경음화는 한자어 중 받침 ‘ㄹ’ 뒤 ‘ㅈ’이 ‘ㅈ’으로



###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현수에 대해 대화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날씨 이야기를 한 B의 발화는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므로 '대화 화제와 관련성이 없는 답'은 적절한 내용이다.
- ② 현수에 대해 대화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날씨 이야기로 대화 화제를 바꾸었다.
- ③ 현수에 대해 대화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날씨 이야기를 한 B의 발화는 A로 하여금 대화 화제를 갑자기 바꾼 것에 주목하게 하여 A에게 '그 이야기는 그만해.'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 ⑤ 강아지가 랩과 노래를 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지만, 그만큼 A의 말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문법 09

본문 234~237쪽

01 ②

02 ①

03 ②

04 ③

05 ①

### 01 사실의 이해

답 ②

####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2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중세 국어에는 양성 모음 3개(으, 오, 아)와 음성 모음 3개(우, 어)가 존재했다. 그에 비해 4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현대 국어에는 양성 모음 2개, 음성 모음 8개가 존재한다. 따라서 중세 국어의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의 수가 각각 현대 국어보다 더 적다고 한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3문단에 따르면 중세 국어에는 모음 조화가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4문단과 5문단에 의하면 현대 국어의 모음 조화는 세력도 중세 국어보다 약하고 예외도 많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 ③ 2문단에 따르면 중세 국어의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은 각각 3개로 동일하지만, 4문단에 따르면 현대 국어는 양성 모음 2개, 음성 모음 8개로 그렇지 못하다. 그러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 ④ 2문단에 따르면 중세 국어의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은 각각 혀를 움츠리거나 조금만 움츠린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4문단에 따르면 현대 국어에 오면서 이러한 공통점들이 사라져 버렸다. 그러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 ⑤ 3문단에 따르면 중세 국어에는 '으' 또는 '오', '오' 또는 '우', '아' 또는 '어'로 시작하는 어미들이 모두 모음 조화의 적용을 받

는다. 그러나 5문단에 따르면 현대 국어에서는 모음 조화의 적용을 받는 어미가 '아' 또는 '어'로 시작하는 어미에 국한된다. 그러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 02 모음 조화의 적용 결과 추론

답 ①

####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막-'의 모음 'ㅏ'는 양성 모음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 뒤에 오는 어미들도 양성 모음으로 시작해야 한다. '-아'와 '-어' 중에서는 '-아', '-옴'과 '-음' 중에서는 '-옴', '-으니'와 '-으니' 중에서는 '-으니'가 양성 모음으로 시작한다. 따라서 어간에 어미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가 적용된 올바른 형태는 '마가, 마곰, 마ㄴ니'가 된다.

### 03 중세 국어 문법의 이해

답 ②

####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맛디다'는 현대 국어의 '맡기다'에 대응하는 동사로 주어, 목적어, 부사어라는 세 개의 문장 성분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겨샤'는 동사 '겨시다'의 활용형으로 현대 국어의 '계시다'와 마찬가지로 주어가 높임의 대상일 때 쓰인다.
- ③ '즈갓'은 주어인 '보살'을 가리키는 재귀 대명사 '즈가'에 관형격 조사 '시'이 결합된 형태이다.
- ④ '오스란'은 '웃'에 보조사 '으'가 결합된 것으로 문장 안에서는 벗는 행위를 나타내는 '밧다'의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 ⑤ '물와'는 이 문장의 목적어로 쓰였는데 접속 조사 '와'만 나타나고 목적격 조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 04 객체 높임의 기능 파악

답 ③

####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의 '아버지'는 '돌보셨다'의 주어이므로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 경우 목적어인 '할머니'가 객체이자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객체 높임의 어미를 사용하게 된다.

####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의 '할아버지'는 '보았다'의 목적어이므로 객체에 해당하며, 높임의 대상이므로 객체 높임의 어미를 사용해야 한다.
- ② ㉡의 '부모님'은 '걸었다'의 부사이므로 객체에 해당하며, 높임의 대상이므로 객체 높임의 어미를 사용해야 한다.
- ④ ㉢의 '선생님'은 '찾아갔다'의 목적어이므로 객체에 해당하며, 높임의 대상이므로 객체 높임의 어미를 사용해야 한다.



⑤ ㉔의 ‘(동네) 어른들’은 ‘뵈었다’의 목적어이므로 객체에 해당하며, 높임의 대상이므로 객체 높임의 어미를 사용해야 한다.

### 05 올바른 형태 찾기

답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ㅎ’으로 끝나는 체언이 뒤에 아무런 조사도 오지 않고 홀로 쓰이면 ‘ㅎ’은 나타나지 않는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하면 ‘ㅎ’이 이어 적기에 의해 조사의 첫음절에 나타나며, ‘ㄱ’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하면 ‘ㅎ’과 ‘ㄱ’이 축약되어 ‘ㅋ’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㉑은 ‘돌’, ㉒은 ‘돌히’, ㉓은 ‘돌과’가 들어야야 올바르다.

**문법 10** 본문 238~240쪽

01 ⑤    02 ②    03 ③    04 ④    05 ①

### 01 받침의 발음 이해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읽고[일꼬]’는 경음화(된소리되기)와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㉑에 속한다. ‘옳대[옳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경음화(된소리되기),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자음군 단순화 규칙이 모두 적용되었으므로 ㉒에 속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흙도[흙또]’는 경음화(된소리되기)와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㉑에 속한다. 그러나 ‘읽고[일꼬]’는 ㉒이 아닌 ㉑에 속한다.
- ② ‘닭고[달꼬]’는 격음화(거센소리되기)만 적용되었으므로 ㉑, ㉒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흙도[흙또]’도 ㉒이 아닌 ㉑에 속한다.
- ③ ‘닭고[달꼬]’는 ㉑, ㉒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옳대[옳따]’는 ㉒에 속한다.
- ④ ‘옳대[옳따]’는 ㉑이 아닌 ㉒에 속한다. ‘닭고[달꼬]’는 ㉑, ㉒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 02 파생 동사의 종류 파악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㉒ ‘밀치다’는 ‘밀다’에 접미사 ‘-치-’가 결합된 파생 동사인데 ‘-치-’는 어근의 뜻을 강조하는 의미만을 갖는 접미사로 피동 접

미사가 아니다. 따라서 ‘밀치다’는 피동사의 예가 아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㉑ ‘웃기다’는 ‘웃다’에 사동 접미사 ‘-기-’가 결합된 파생 동사로 사동사의 예이다.
- ③ ㉓ ‘늦추다’는 형용사 ‘늦다’에 접미사 ‘-추-’가 결합된 파생 동사의 예이다.
- ④ ㉔ ‘반짝이다’는 부사 ‘반짝’에 접미사 ‘-이다’가 결합된 파생 동사의 예이다.
- ⑤ ㉕ ‘약속하다’는 명사 ‘약속’에 접미사 ‘-하다’가 결합된 파생 동사의 예이다.

### 03 맞춤법 규정의 준말 이해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익숙하지’에서 ‘하’는 안올림소리 ‘ㄱ’ 뒤에 있으므로 ‘하’가 아주 줄어서 ‘익숙지’로 적는다. 따라서 ‘익숙지 않다’가 옳은 표기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간편하게’에서 ‘하’는 올림소리 ‘ㄴ’ 뒤에 있으므로 ‘ㅏ’만 줄고 ‘ㅎ’은 다음 음절 첫소리와 어울려 ‘간편케’로 적는 것이 옳다.
- ② ‘심심하다’에서 ‘하’는 올림소리 ‘ㅁ’ 뒤에 있으므로 ‘ㅏ’만 줄고 ‘ㅎ’은 다음 음절 첫소리와 어울려 ‘심심타’로 적는 것이 옳다.
- ④ ‘깨끗하지’에서 ‘하’는 안올림소리 ‘ㅅ’ 뒤에 있으므로 ‘하’가 아주 준 ‘깨끗지’로 적는 것이 옳다.
- ⑤ ‘다정하지’에서 ‘하’는 올림소리 ‘ㅇ’ 뒤에 있으므로 ‘ㅏ’만 줄고 ‘ㅎ’은 다음 음절 첫소리와 어울려 ‘다정치’로 적는 것이 옳다.

### 04 ‘이다’의 표기에 대한 이해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 뒤에서는 ‘이다’의 ‘이-’가 쓰일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지우개이에요’, ‘지우개이었다’처럼 꼭 쓰여야 하지만 실제 발화에서는 자주 축약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연필이에요’가 적절하지 않은 표기인 것은 ‘연필이었다’가 적절하지 않은 것과 같이 ‘이-’가 중복된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경험이다’, ‘생각이다’에도 ‘-예요’가 결합하면 ‘경험이에요’, ‘생각이에요’로 써야 한다.
- ② ‘연필이에요’는 ‘이다’와 ‘이에요’의 ‘이-’가 중복된 형태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표기이며, ‘연필+이-+이-+-예요’로 분석된다.
- ③ 받침이 없는 명사의 경우, 즉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의 경우 ‘지우개예요’처럼 ‘명사+이에요’에서 ‘이-’가 줄어든 형태로 쓸 수 있다.



## 02 담화의 개념과 특성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나)와 달리 (가)에서는 담화 생산자와 담화 수용자의 상호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는 ‘찾아오시는 길’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약도’를 삽입하는 등 시각 자료를 같이 활용하여 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② (나)의 ‘국수를 먹이다’라는 비유는 결혼식 피로연에서 흔히 국수를 대접하는 데서 비롯되어 결혼식을 올리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이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국수를 먹이다’라는 언어적 표현의 의미가 확대된 경우에 해당한다.

③ (가)는 결혼식에 대한 정보(결혼하는 사람, 결혼식 일시와 장소, 결혼식장에 찾아오는 방법 등)를 제공하는 기능과, 결혼식에 초대하는 상대방에게 결혼식에 참석해 줄 것(‘꼭 오셔서 축복해주세요.’)을 호소하는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

④ (나)에서 외국인인 ‘마이크’가 자기 결혼식에 ‘마이크’를 초대하려는 ‘현지’의 의도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국수를 먹이다’라는 한국의 결혼식 문화와 관련한 관용 표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03 담화의 응집성과 통일성을 위한 지시 표현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은 ‘음악에 맞춰서 동작을 연습하려는 곧 돌아오는 차례’를 의미하므로 시간상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때를 나타내고, ㉡은 ‘이전에 동작을 연습했을 때’를 의미하므로 시간상으로 과거의 때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 아니라 ㉡이 시간상으로 앞서 일어난 때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청자(‘윤미’)에게 가까운 곳을 가리키고, ㉡은 화자(‘윤미’)에게 가까운 곳을 가리키므로, ㉠과 ㉡은 모두 ‘윤미’에게 가까운 곳을 가리키고 있다.

② ㉢은 화자(‘승아’)가 자신이 동작을 직접 취하면서 발화한 것에 해당한다.

③ ㉣은 청자(‘승아’)의 동작을 나타낸 것에, ㉤은 화자 자신(‘윤미’)의 동작을 나타낸 것에 해당한다.

⑤ ㉠과 ㉡은 모두 ‘승아’가 연습하는 동작을 가리키고 있다.

## 04 담화의 응집성과 통일성을 위한 지시 표현, 대응 표현

답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의 ‘여기’는 화자가 위치한 장소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지시

표현에 해당한다. ㉡의 ‘그렇다’는 앞 문장의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를 다시 가리키는 대응 표현이다. ㉢의 ‘그’는 뒤 문장의 ‘자신과 전 세계를 모험할 영웅’을 미리 가리키는 대응 표현에 해당한다.

## 05 담화의 응집성과 통일성을 위한 접속 표현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은 앞의 내용을 인정하면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대립될 때 쓰이므로, ㉡이 화자가 숙제를 다 마치면 놀러 가도 된다는 어머니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그래서’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 조건 따위가 될 때 쓰이므로, 앞뒤의 맥락을 고려할 때 ㉠은 ‘(내가 지금 놀러 갈 수가 없는 이유는) 숙제를 다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그렇지만’은 앞의 내용을 인정하면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대립될 때 쓰이므로, 앞뒤의 맥락을 고려할 때 ㉡은 ‘숙제는 다 마쳤지만 (어머니의 말씀 외에도) 지금 놀러 갈 수가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에는 숙제를 다 마치면 놀러 가도 된다는 어머니의 말씀을 ‘놀러 가는’ 행동의 조건으로 받아들여서, ‘숙제를 다 마치면 놀러 갈 수 있고, 숙제를 다 마치지 못하면 놀러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화자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④ ‘그런데’는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이끌 때 쓰이므로, 앞뒤의 맥락을 고려할 때 ㉣은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지 않았던 철수가 시험에 합격한 것은 의외의 일이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을 의외성을 강조하는 데 쓰이는 보조사 ‘도’가 결합한 형태인 ‘그런데도’로 바꾸어 쓰면 ㉣에 함축된 의미를 강조할 수 있다는 서술은 적절하다.

⑤ ㉤에는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과 ‘시험 합격’을 상반되는 내용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지 않았던 철수가 시험에 합격한’ 것을 뜻밖의 일로 받아들이는 화자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 문법 09

본문 265~268쪽

01 ③

02 ③

03 ⑤

04 ⑤

05 ③





01 중세 국어의 문법적 특징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받즈온’에 포함된 ‘-즈-’은 주체를 높이는 형태소가 아니라 목적어나 부사어와 같은 객체를 높이는 형태소이므로 활용 계획이 잘못되었다. 이 문장에서는 ‘받즈온’이 부사어인 ‘父母(부모) 씨’를 높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孔子(공자)ㅣ’는 현대 국어라면 ‘공자가’와 같이 주격 조사 ‘가’가 쓰여야 할 자리에 ‘ㅣ’가 쓰였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이 자료는 중세 국어 시기에는 주격 조사 ‘가’가 없었다는 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
- ② ‘술흔’은 ‘ㅎ’으로 끝나는 체언 ‘숯’ 뒤에 조사 ‘은’이 결합된 말로 말음 ‘ㅎ’을 이어서 적은 경우이다. 따라서 이 단어는 중세 국어에 ‘ㅎ’으로 끝나는 체언이 있었다는 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 참고로 현대 국어에는 ‘ㅎ’으로 끝나는 체언이 없지만 중세 국어에는 적지 않았다. ‘숯’의 ‘ㅎ’은 합성어 ‘살코기(숯+고기)’에 흔적으로 남아 있다.
- ④ ‘거시라’는 ‘것’ 뒤에 조사 ‘이라’가 결합된 말로 ‘것’의 ‘ㅅ’을 이어서 적은 경우이다. 현대 국어라면 ‘것이라’와 같이 분리해서 적게 된다. 따라서 이 자료는 중세 국어 시기의 이어 적기 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
- ⑤ 중세 국어 시기에는 ‘ㅂ’으로 시작하는 어두 자음군이 존재했으며 ‘ㅼ’의 초성 ‘ㅼ’은 실제로 ‘ㅂ’과 ‘ㅅ’이 모두 발음되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이 자료는 중세 국어 시기에 어두에서 두 개의 자음이 발음되었다는 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

02 중세 국어 자음의 세기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불청불탁을 가리키는 문자에 획을 더하여 전청을 나타내는 문자를 만들고 여기에 다시 획을 더하여 차청을 나타내는 문자를 만든다. 획을 더할수록 그 문자가 나타내는 소리는 세기가 세어진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불청불탁에 속하는 소리가 제일 약하고 차청에 속하는 소리가 가장 강하다.

03 모음과 모음자의 변화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현대 국어에서 하나의 글자로 된 모음자에는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의 10개가 있다. 이러한 10개의 글자 중 중세 국어 시기에 두 개의 글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모음자는 없다. 그러므로 잘못된 설명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중세 국어의 단모음 수는 ‘ㆍ, ㅡ, ㅣ, ㅓ, ㅕ, ㅗ, ㅛ, ㅜ’의 7개이다. 이 중 ‘ㆍ’가 없어지고 ‘ㅑ, ㅓ, ㅕ, ㅛ’가 단모음으로 바뀌었으므로 현대 국어에는 10개의 단모음이 존재한다. 따라서 중세 국어 단모음의 수가 현대 국어보다 더 적다는 것은 올바른 설명이다.
- ② 중세 국어의 단모음 중 ‘ㆍ’는 후대에 사라졌으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 ③ 중세 국어의 단모음 7개(ㆍ, ㅡ, ㅣ, ㅓ, ㅕ, ㅗ, ㅛ)는 모두 한 글자로 된 모음자로 나타내었으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 ④ 중세 국어의 이중 모음 중 ‘ㅑ, ㅓ, ㅕ, ㅛ’는 현대 국어에 이르면서 단모음으로 바뀌었으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04 모음자에 담긴 정보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현대 국어의 ‘내’는 발음상 반모음 ‘w’와 단모음 ‘ㅐ’로 이루어진 이중 모음이며, 문자상으로는 ‘ㄴ, ㅐ, ㅣ’의 세 글자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두 개의 글자’라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현대 국어의 ‘ㅑ’는 발음상 반모음 ‘j’와 단모음 ‘ㅏ’로 이루어진 이중 모음이며, 문자상 하나의 글자이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 ② 중세 국어의 ‘ㅑ’는 발음상 단모음 ‘ㅏ’와 반모음 ‘j’로 이루어진 이중 모음이며, 문자상 두 개의 글자로 이루어졌으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 ③ 현대 국어의 ‘ㅓ’는 발음상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며, 문자상 ‘ㅓ’와 ‘ㅣ’의 두 글자로 이루어졌으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 ④ 중세 국어의 ‘ㆍ’는 발음상 단모음이며, 문자상 하나의 글자이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05 옛말의 모습을 알 수 있는 현대 국어 이해하기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맞잡다’는 ‘마주 잡다’를 뜻하는 말로, ‘맞잡다’의 ‘-잡-’은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아니라 ‘잡다’의 어근이 쓰인 것이므로 또 다른 예로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쇠고기’는 ‘소의 고기’를 뜻하는 말로 ‘쇠고기(←쇼+~위+고기)’에서 왔으므로 또 다른 예로 볼 수 없다.
- ② ‘암개’는 ‘개의 암컷’을 뜻하는 말로 ‘암개(←암+개)’에서 왔으므로 또 다른 예로 볼 수 없다.
- ④ ‘햅쌀’은 ‘당해에 새로 난 쌀’을 뜻하는 말로 ‘햅+쌀’에서 왔으므로 또 다른 예로 볼 수 없다.



⑤ ‘마주’는 ‘서로 똑바로 향하여’를 뜻하는 말로 ‘맞-+-오’에서 왔으므로 또 다른 예로 볼 수 있다.

### 문법 10

본문 269~274쪽

- 01 ①
- 02 ②
- 03 ④
- 04 ④
- 05 ⑤
- 06 ①

#### 01 음운 변동의 유형 구분

답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맡는[만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적용되었으며, 이 둘은 모두 교체에 속하므로 ①에 속한다. ‘흙과[흑파]’에는 된소리되기와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었으며, 된소리되기는 교체이고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이어서 ①의 예에 속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닭고[담:꼬]’는 된소리되기와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었으며, 된소리되기는 교체이고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이어서 ①에 속하지 않는다. ‘옳다[읍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었으며,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는 교체이고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이어서 ①의 예에 속한다.

③ ‘웃하고[오타고]’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자음 축약(거센소리되기)이 적용되었으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교체이고 자음 축약은 축약이어서 ①에 속하지 않는다. ‘흙자[흑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었으며,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는 교체이고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이므로 ①의 예에 속한다.

④ ‘빛고[빈꼬]’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가 적용되었으며, 이 둘은 모두 교체에 속하므로 ①에 속한다. ‘할이대[할치다]’는 교체에 속하는 구개음화만 적용되었을 뿐이므로 ①에 속하지 않는다.

⑤ ‘밑이[미치]’는 교체에 속하는 구개음화만 적용되었을 뿐이므로 ①에 속하지 않는다. ‘꽃잎[핀닙]’은 ‘ㄴ’ 첨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가 적용되었으며,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는 교체이고 ‘ㄴ’ 첨가는 첨가이므로 ①의 예에 속한다.

#### 02 자음 체계를 통한 음운 변동의 성격 파악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는 비음화에 속하는 음운 변동이며, 자음의 조음 위치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조음 방식만 파열음이 비음으로 바뀌고 있다. ㉡는 유음화에 속하는 음운 변동이며, 역시 자음의 조음 위치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조음 방법만 비음이 유음으로 바뀌고 있다. 즉

㉠와 ㉡는 모두 조음 위치는 그대로 유지되고 조음 방법만 바뀌는 음운 변동이다.

#### 03 의존 명사의 특성 이해하기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어쩔 줄 몰랐다’에서 ‘어쩔 줄(을)’은 목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데’ 앞에는 ‘의지할’처럼 관형어가 수식해야 문장에서 쓰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② 의존 명사 중에는 ‘데’처럼 관형사형 어미의 제약이 없는 것이 있는 반면, ‘바람’처럼 제약이 심한 것이 있으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 참고로, 국어사전에서는 의존 명사 ‘바람’에 대해서 “(‘-는 바람에’ 구성으로 쓰여) 뒷말의 근거나 원인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③ 의존 명사 ‘나위’ 뒤에는 주로 조사 ‘가’가 쓰이며 뒤에 서술어로 ‘없다’가 오는 구성으로 쓰이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⑤ ‘너만큼’의 ‘만큼’은 조사이고 ‘노력한 만큼’의 ‘만큼’은 의존 명사인데, 둘의 형태가 동일하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 04 ‘있다’의 품사 구별하기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은 조용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라’처럼 활용되므로 동사이다. ㉡은 책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라’처럼 활용되지 않으므로 형용사이다. ㉢은 교실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라’처럼 활용되므로 동사이다. ㉣은 동전을 소유한 것을 의미하고 ‘있어라’처럼 활용되지 않으므로 형용사이다.

#### 05 명령문에서 직접 명령과 간접 명령의 차이 이해하기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고향을 떠나 고생하는 아들에게 고향으로 돌아오는 행동을 하기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므로 직접 명령형이 적절하다. 따라서 ‘돌아오다’의 어간 ‘돌아오-’에 ‘-아라’를 결합한 ‘돌아와라’가 적절한 표현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인쇄 매체를 통해 청자에게 간접적으로 말을 전달하는 간접 명령형을 사용해야 하므로 ‘살다’의 어간 ‘살-’에 ‘-라’를 결합한 ‘살라’가 적절한 표현이다.

② 옆에 있는 친구에게 시계를 고치는 행동을 하기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므로 직접 명령형이 적절하다. 따라서 ‘고치다’의 어간 ‘고치-’에 ‘-어라’가 결합한 ‘고쳐라’가 적절한 표현이다.